

건설산업동향

적격심사 경영상태 평가시 신용등급 활용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김민형

2007. 8. 9

■문제의 제기	4
■신용등급평가의 현황 및 문제점	6
■개선방안	13
■결론	20

요 약

- ▶ 현재 적격심사 구조에 의하면 경영상태(신용등급)가 수주의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하여 A등급을 받는 일부 극소수 업체들에게 공사가 집중되는 수주 독점화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요망됨.
 - 신용평가등급 전면 활용을 앞두고 건설업체들의 신용평가 등급을 검토한 결과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공사를 주로 수행하는 조달청 3~4등급 업체들의 경우 일부 극소수 업체만이 A등급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 ▶ 현재 신용등급 평가기관들의 내부 정책을 보면, 비 외부감사 법인이 대부분인 3~4등급 업체들의 경우 신용평가 항목에 대한 점수가 아무리 좋아도 트리플 A(AAA)등급을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음.
 - 내부 정책에 따라 비외감기업은 더블A(AA)를 최고 등급으로 하고 더블B(BB)라 평균이 되는 정규 분포에 따라 신용등급을 평가하고 있음.
- ▶ 또한, 신용평가 항목 중 중소기업으로서는 충족이 어려운 비재무정보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재무비율이 좋아도 낮은 등급을 받을 수밖에 없음.
 - 안정성을 제외한 나머지 재무비율의 경우 3~4등급 업체들이 1~2등급 업체들에 비해 양호함에도 불구하고, 종업원 수, 기술자 수, 영업 연수 등과 같은 계량 비재무 항목이나 산업위험, 영업위험, 경영위험 등 비계량 비재무 항목의 평가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불리하여 신용평가 등급이 낮을 수밖에 없음.
 - 이외에 '신용평가 쇼핑' 현상이나 '끼워팔기'와 같은 기현상에 따라 비용부담이 가중됨.
- ▶ 현실적인 상황과 프로젝트별 사전평가의 의의에 비추어 볼 때, 현행 적격심사 시 경영상태 심사는 프로젝트 수행에 적합한 재무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만을 평가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임.
 - 300억원 이상 PQ공사에서와 같이 통과와 탈락방식으로 전환하든가, 그것이 어렵다면 배점한도(만점기준)를 하향 조정하여야 할 것임.
 - 만점기준 하향 조정 방안의 경우 업체 등급별 형평성을 고려하여 2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A-등급, 2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은 트리플 B+(BBB+)등급으로 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사료됨.

■ 문제의 제기

- 지난 2004년 10월 1일 재경부는 회계예규 「PQ요령」을 개정하여 PQ 및 적격심사시 경영상태 평가방법을 대폭 개선함. 이에 따라 2007년 7월 1일부터 재무비율에 의한 평가를 폐지하고 신용등급에 의한 평가방법으로 일원화하도록 함.
- 추정가격 500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 2006년 7월 1일부터,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공사는 2007년 7월 1일부터 경영상태 평가를 신용평가등급으로 일원화함.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배점기준은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회사채 또는 기업신용 등급 트리플A(AAA)를 만점(35.0)으로 하여 25.0점인 트리플C+(CCC+)까지 원점수 10점의 차이가 나도록 설계되어 있음.

〈표 1〉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배점

신용평가등급			배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AAA		AAA	35.0
AA+, AA0, AA-	A1	AA+, AA0, AA-	34.0
A+	A2+	A+	33.6
A0	A20	A0	33.3
A-	A2-	A-	33.0
BBB+	A3-	BBB+	32.5
BBB0	A30	BBB0	32.3
BBB-	A3-	BBB-	32.0
BB+, BB0	B+	BB+, BB0	30.4
BB-	B0	BB-	29.5
B+, B0, B-	B-	B+, B0, B-	27.0
CCC+ 이하	C이하	CCC+ 이하	25.0

자료: 조달청

- 그러나 신용평가등급 전면 활용을 앞두고 건설업체들의 신용평가 등급을 검토한 결과 3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 공사를 주로 하는 조달청 3~4 등급 업체들의 경우 기존의 재무비율 평가 결과와는 달리 일부 극소수 업체만이 A등급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와 같은 상황에서 현재 3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 적격심사 공사의 경우 사업 수행능력¹⁾ 평가 점수 총 40점 중 14점(35%)를 차지하는 경영상태(신용등급)가 공사 수주 여부에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하고 있음.
 - 적격심사의 4개 대분류 항목(수행능력평가(40점), 입찰가격 평가(30점),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평가(16점), 하도급 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14점)) 중 입찰가격, 자재 및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및 하도급 관리계획의 적정성 등은 업체 간에 큰 차이를 갖지 않음.
 - 또한, 대분류 4개 항목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수행능력평가의 세분류 항목 중 경영상태를 제외한 여타 항목은 공동도급을 통해 보완이 가능한 반면, 경영상태는 공동도급을 통해서도 보완이 어렵기 때문임.
- 따라서 현행과 같이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심사가 이루어진다면 3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 신용평가에서 A등급을 받은 일부 극소수업체에 공사가 집중되는 현상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음.
- 이러한 공사 독점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신용평가 항목 및 구조에 대한 검토를 통해 중소 건설업체들의 신용평가 등급이 낮은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해 보고, 만약 문제점이 있다면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임.

1) 추정가격 3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 공사의 사업 수행능력(40점) 평가를 위해서는 시공경험(12점), 기술능력(12점), 시공평가 결과(2점), 경영상태(14점), 신인도(± 1.2 점)의 5가지 항목이 사용됨.

■ 신용등급평가의 현황 및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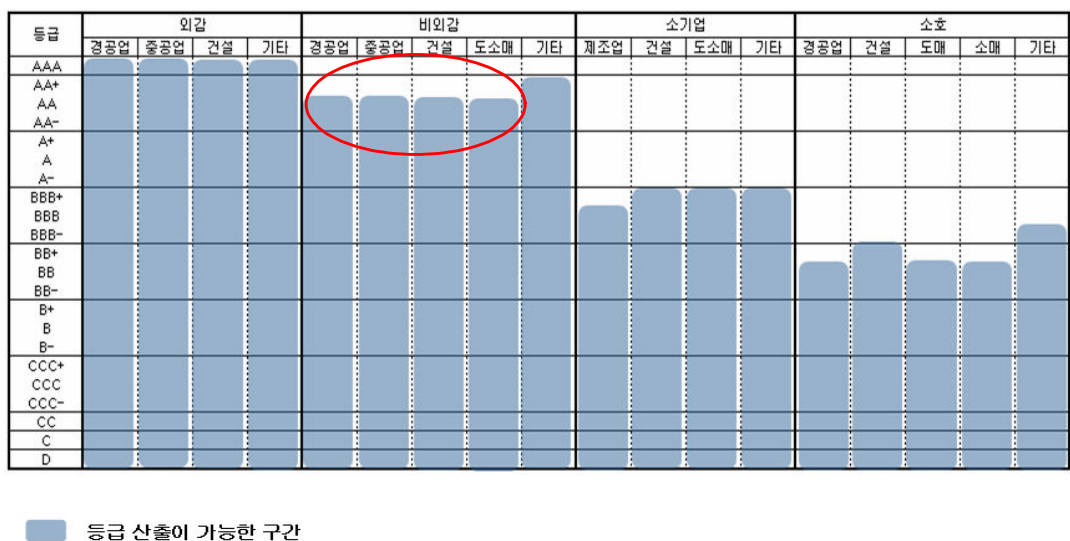
중소 건설업체라는 태생적 한계에 따른 문제점

■ “비외감 법인”이라는 특성으로 인한 최고 등급 취득의 원천적 한계

- 현재 우리나라 6개 신용평가 기관들²⁾의 신용평가 정책에 따르면, 외부 감사를 받지 않는 자산규모 70억원 미만 기업(이하 비외감 기업)과 소기업은 신용평가 항목에 대한 점수가 아무리 좋아도 최고 등급인 트리플 A(AAA)를 받지 못함. 즉,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업종을 불문하고 비외감 기업이 받을 수 있는 신용평가 최고 등급은 더블 A(AA)임.
- 특히 외부감사를 받는 기업의 경우 트리플 A(AAA)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건설업의 경우 트리플 A(AAA)등급을 받은 업체는 하나도 없는 상태임(신용평가기관 관련자 인터뷰).

<그림 1> 모 신용평가기관의 기업 유형별 산출가능한 최고등급 기준

[Segmentation별 산출 가능 최고 등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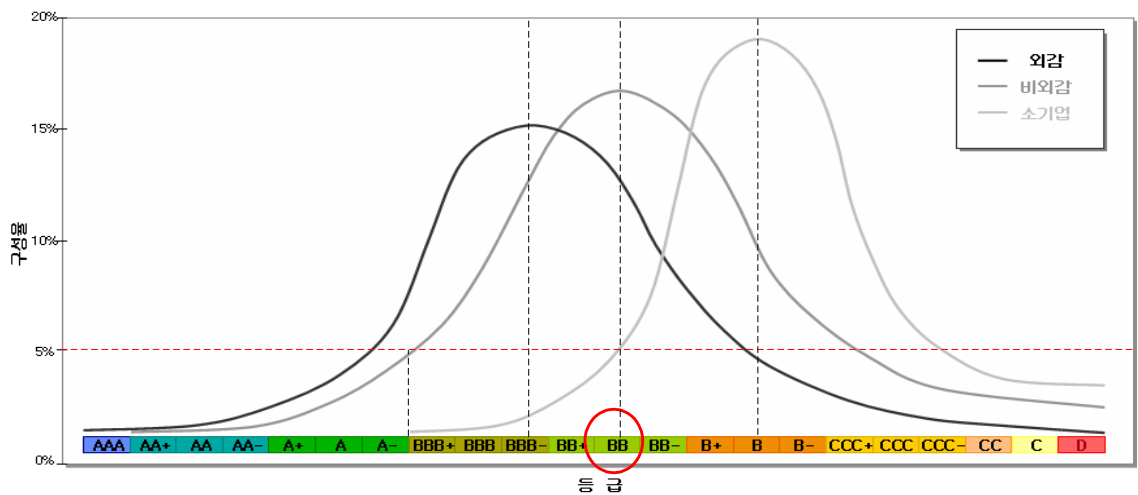


자료: ooo신용평가기관 내부자료.

2) 6개 신용평가기관들은 다음과 같음. 한국신용정보, 한국기업평가, 서울신용평가정보, 한국기업데이터, 한국신용평가정보(한국신용평가 자회사), 디엔비코리아(한국신용정보 자회사)

- 또한, 대부분의 신용평가기관들은 외감기업, 비외감기업 및 소기업에 대한 신용평가 결과가 <그림 2>와 같은 정규 분포를 가지도록 평가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음.
- 즉, 외감기업의 경우 트리플B(BBB), 비외감 기업은 더블B(BB), 소기업은 비 플러스(B+)가 평균이 되는 정규분포를 이루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비외감 기업의 경우 A등급은 전체 업체의 5%에 불과함

〈그림 2〉 모 신용평가기관의 기업 규모별 등급 분포



- 그런데, 3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 공사를 주로 수행하는 조달청 3~4 등급 업체의 경우 대부분이 외부감사를 받지 않는 자산규모 70억원 미만의 비외감 업체로 구성됨(<표 2>참조).
- 3군 업체는 70.9%가, 4군 업체는 무려 92.9%가 비외감 기업임.
- 이와 같은 상황에서 3~4등급 업체가 AA등급 이상을 받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며 A등급 이상을 받기도 매우 어려움.

〈표 2〉 조달청 등급별 외감 및 비외감 기업 현황

(단위: 개사, %)

등급	비 외감 기업	외감 기업	합계
1등급	1(0.6)	173(99.4)	174(100.0)
2등급	41(14.1)	250(85.9)	291(100.0)
3등급	410(70.9)	168(29.1)	578(100.0)
4등급	696(92.9)	53(7.1)	749(100.0)

자료: 대한건설협회, 내부자료

■ 신용평가항목 중 상대적으로 비중이 큰 비재무정보 충족의 근원적 한계

- 현재 신용평가기관들의 평가항목을 보면 대체로 ① 재무비율, ② 계량 비재무정보, ③ 대표자 정보, 그리고 ④ 비계량 비재무 정보의 4가지 형태로 구성됨(<그림 3> 참조).

〈그림 3〉 신용등급평가를 위한 주요 평가항목

INFORMATION

재무 비율		계량비재무 정보		대표자 정보		비계량비재무 정보
변동성(DD)	매출액변동계수, 수익가치DD, 장부가치DD, 현금흐름DD 등	기업채현황	업력, 사업장 소유구분, 사업장 권리침해 등	신상정보	연령, 대표자 개인의 주거지 소유구분, 권리침해구분 등	산업위험
성장성	총자산증가율 등	금융거래신뢰성	대신거래 기간 중 불량규제 경험 등	대출/보증현황	대표자 개인의 업종별 대출/보증 현황 (대출/보증 금액 및 건수 등)	영업위험
수익성	매출액경상이익율, 자본금경상이익율, 자본금순이익율, 총자산수익율(ROA), EBITDA 등	재무신뢰도	재무제표신뢰도	기타	공공기록정보, 카드개설이력정보 등	경영위험
활동성	(매출채권+재고자산)/매출액, 매입채무회전율, 순운전자금회전율, 재고자산회전율, 총자본회전율 등	자금흐름추이	자금흐름추이			
안정성	매출총이익/이자비용, 수정이자보상배율, 순금융비용/매출액, 유동자산/총자산, 차입금의존도, EBITDA/금융비용, EBITDA/총차입금 등	지분율	특수관계인 지분율			
유동성	단기성차입금/당좌자산, 현금성당좌자산/유동자산, 당좌비율, 현금비율 등					
현금흐름	순이자보상계수, 현금영업이익/부채, 현금영업이익/총차입금 등					

※ 위 평가항목은 규모별 업종별로 사용여부 및 가중치가 다르게 적용됨.

※ 각 평가항목은 재무제표 계정을 이용해 정의되며, 기존 CCRS 평가항목과 매핑 관계를 정의할 수 없음. (이유: 동일한 이름의 항목이라 하더라도, 정의가 다를 수 있음.)

자료: ooo신용평가기관, 내부자료

- 이러한 각각의 평가항목은 신용평가기관별로 차이가 있으며, 동일한 신용평가기관이라 할지라도 업종 및 기업 규모별로 사용여부 및 가중치가 다르게 적용됨.
-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기업의 규모가 작을수록 비재무적이며 비재무적인 항목의 비중이 높게 적용되고 있음.
 - 외부감사기업(자산규모 70억원 이상) : 재무항목 70%, 비재무항목 30%
 - 자산규모 10억원 이상 70억원 미만의 비외부감사 기업 : 재무항목 50%, 비재무항목 50%
 - 자산규모 10억원 미만의 소기업 : 재무항목 30%, 비재무항목 70%
- 따라서 비 외부감사 기업이 대부분인 조달청 3~4등급 업체들의 경우에는 재무항목 50%, 비재무 항목 50%로 비재무 항목의 비중이 1~2등급 업체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되고 있음.
- 여기서 재무항목 평가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재무비율을 업체 등급별로 살펴보면,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안정성’을 제외한 나머지 측면에서는 3~4등급 업체들의 재무비율이 1~2등급 업체들에 비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
 - 2006년도 3~4등급 업체의 매출액영업이익률을 보면, 1~2등급 업체와 유사하게 6.3%와 5.9%를 기록하였으며, 성장성의 대표적 지표인 매출액증가율의 경우 각기 6.2%와 4.4%로 1등급 업체보다는 다소 떨어지지만 2등급 업체보다는 월등히 좋은 수치를 나타냄.
 - 유동성을 나타내는 당좌비율 역시 각기 123.9%와 136.4%로 104.2%와 100.7%를 나타낸 1~2등급 업체에 비해 훨씬 양호하며, 총자본회전을 역시 1.6회와 1.2회로 1~2등급 업체보다 양호함.

〈표 3〉 조달청 업체 등급별 재무비율 비교(2006)

(단위: %, 회)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업계평균
안정성	차입금의존도	16.4	21.7	20.2	24.6	18.6
	금융비용부담률	1.1	1.7	1.9	1.9	1.3
	총이자부담률	1.8	2.4	4.4	3.7	2.1
	부채비율	159.9	182.7	152.1	128.8	151.4
	자기자본비율	38.5	35.4	39.7	43.7	39.8
수익성	자본금경상이익률	62.7	38.7	46.1	27.2	40.8
	매출액영업이익률	6.3	4.9	6.3	5.9	5.9
	총자본투자효율	16.0	17.4	27.6	25.7	15.6
성장성	총자산증가율	11.2	6.4	12.8	7.7	10.7
	매출액증가율	7.7	-0.4	6.2	4.4	5.4
	경상이익증가율	0.6	-27.5	22.2	32.3	0.1
	영업이익증가율	-0.6	-11.7	2.8	38.0	0.2
	자기자본증가율	11.5	10.0	32.6	12.7	11.3
유동성	당좌비율	104.2	100.7	123.9	136.4	110.9
	고정비율	114.4	103.6	61.6	84.2	101.3
활동성	재고자산회전율	8.9	7.0	7.9	8.5	8.0
	총자본회전율	1.1	1.0	1.6	1.2	1.0
	매출채권회전율	7.3	14.0	13.7	16.7	8.4

자료: 대한건설협회, 내부자료

- 이와 같이 재무항목에 대한 평가가 대기업보다 양호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3~4등급 업체들의 신용등급이 1~2등급 업체들에 비해 낮은 것은 전술한 신용평가업체들의 규모별 신용평가 정책과 더불어 중소기업 평가시 비중이 높은 비재무 항목들이 중소기업으로서는 원천적으로 충족하기 어려운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임.

- 현재 신용평가기관에서 평가되는 비재무 항목 중 평가자의 주관에 의해 평가되는 비계량 비재무 항목의 경우 기업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일수록 환경변화에 따라 당면하게 되는 리스크가 큼으로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평가될 수 밖에 없음.
- 대표적인 비계량 비재무 항목은 ① 산업위험(산업환경, 위기상황영향 등), ② 영업위험(구매의 안정성, 인력/기술 경쟁력, 입지/설비수준, 주 거래처 신용도, 고정거래처에 대한 매출비중, 거래처의 다양성, 경쟁구조 등), ③ 경영위험(전문성과 경영능력, 경영진의 안정성, 노사관계 및 복리후생, 윤리 경영, 사회적 책임, 재무자료 신뢰도 등) 등임.
- 또한, 비재무 정보 중 계량화가 가능한 계량 비재무 정보의 경우도 1~2 등급 업체에 비해 3~4등급 업체들이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는 항목들로 구성됨.
- 대표적인 비재무 계량정보인 영업 년수, 종업원 수, 기술자 수를 보면,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1등급 업체와 여타 등급 업체 간에 뚜렷한 차이를 보임.
- 더욱이 3~4등급 업체는 2등급 업체에 비해서도 3개 지표 모두에서 상대적으로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남.

〈표 4〉 조달청 등급별 주요 비재무 계량정보

(단위: 개사, 명, 년)

군	업체 수(A)	총 상시종업원 수(B)	총 기술자 수(C)	업체당 평균 종업원 수(B/A)	업체당 평균 기술자 수(C/A)	평균 영업 년수
1등급	174	95,748	54,707	550.3	314.4	24
2등급	291	17,675	10,215	60.7	35.1	17
3등급	578	16,589	11,596	28.7	20.1	12
4등급	749	17,835	11,187	23.8	14.0	8

자료 : 대한건설협회, 내부자료

- 이와 같이 중소 건설업체들의 경우 신용평가지 재무정보보다는 비재무 정보에 대한 비중이 높은 반면, 요구되는 비재무 계량 정보들도 기업 규모가 작은 중소 건설업체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한 항목들임.
- 또한, 중소기업일수록 경영활동시 당면하는 리스크도 커 비계량 비재무 정보 항목의 점수도 역시 낮아져 중소기업일수록 전반적인 신용평가 등급이 낮을 수밖에 없음.

기타 부정적 효과

■ 신용평가 shopping 현상 발생에 따른 평가비 부담 가중

- 사용하는 평가항목, 평가 모델 등의 차이로 현재 국내 6개 신용평가기관의 평가 결과가 각기 상이함(크게는 2등급까지 차이가 난다고 함)에 따라 신용등급에 민감한 건설업체들은 조금이라도 나은 등급을 받기 위해 신용평가기관 6군데 모두에서 신용평가를 받는 기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 이와 같이 신용평가 shopping현상이 발생하는 등 중소 건설업체와 신용평가기관과의 관계에서 평가자가 우월적 지위를 점유함에 따라 신용기관들은 평가 비용을 인상시키고 있음.
 - 기존에 25만원하던 비용이 현재는 35만원으로 인상되었으며, 향후 50만원까지 인상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임.
- 따라서 과거 재무비율 평가 시에는 전혀 비용이 들지 않던 것이 신용등급으로 전환한 후에는 신용평가가 기업의 새로운 비용 발생 요인이 되고 있음.

■ 신용평가 기관의 ‘끼워 팔기’ 관행 유발

- 중소 건설업체들이 신용등급에 민감하고, 신용평가시 사용되는 비재무정보, 특히 비계량정보의 경우 평가자의 주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는 특성³⁾에 따라 일부 신용평가기관의 경우 평가자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신용정보 서비스’를 구매할 것을 강권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 개선방안

개선의 기본방향

- 건설업에 있어서 사전능력평가시스템은 일정한 조건하에서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한 적절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건설업체가 입찰 프로세스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발주자가 건설업체를 선택하는데 따르는 실패를 줄이는데 그 목적이 있음.
- 특히 프로젝트 차원(project level)의 평가시스템은 기업 차원(firm level)에서 이루어지는 연간 평가시스템과는 달리 시공성에 기초하여 공사의 성공적인 수행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일반적임.⁴⁾
 - 건설업체의 능력을 입찰 전에 평가하는 시스템은 평가 대상에 따라 특정 프로젝트를 전제로 사업수행능력을 심사하는 방법(project by project pre-qualification)과 기업의 전반적인 능력을 총체적·주기적으로 심사하는 심사방법(annual pre-qualification)으로 구분될 수 있음.

3) 만약 신용평가기관에서 우수한 등급을 받은 업체가 부도가 나도 신용평가기관은 어떠한 책임도 없으므로 평가자는 신용평가에 있어서 어느 정도 재량을 가질 수 있음.

4) J.S. Russell, Constructor Prequalification-Choosing Best Constructor and Avoiding Constructor Failure-, New York: ASCE Press, 1996, pp. 28 ~ 29

- 기업 차원에서 주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전 능력 평가 시스템은 조직 전체 차원에서 건설업자의 실패(즉, 파산이나 부도로 인한 공사 수행 불가)에 초점을 맞춘 재무 지향적인(financial orientation) 심사방법임.
 - 반면, 프로젝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사전능력 평가 시스템은 프로젝트의 특성(project specific)을 강조하여 건설업자의 과거 경험, 역량, 기술적 전문성 및 발주자와의 조화 등에 평가의 초점을 맞춤(<표 5> 참조).
- 따라서 프로젝트 차원에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는 적격심사에서 경영 상태에 대한 심사는 프로젝트 수행에 적합한 재무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만을 평가하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임.

〈표 5〉 프로젝트별 평가 시스템과 연간 평가 시스템의 특성 비교

구분	프로젝트별 평가 시스템	연간 평가 시스템
분석형태	- 동태적	- 정태적
분석의 깊이	- 광범위함(특정 프로젝트를 고려하여 프로젝트 특성에 따른 분석 수행)	- 덜 광범위함(특정 프로젝트를 고려하지 않음. 발주자는 일반적인 자료를 통한 분석 수행)
분석을 위한 가용 정보 형태	- 건설업체의 활동과 관련된 최근의 정보	- 시차가 있는 정보
분석의 초점	- 건설업체의 포트폴리오 내에서 프로젝트의 적합성 평가	- 재무적인 저보를 활용하여 산출된 건설업체의 최대 능력(maximum capacity) 평가
분석 요소	- 프로젝트의 특성(project specific) 관련 요소 및 객관적 요소	- 재무적 안정성, 재무적 여유 정도 및 기업의 공사실적 관련 요소
중점 분석 요소	- 프로젝트 특성 요소(건설업자의 과거 경험, 역량, 기술적 전문성 및 발주자와의 조화 등) 및 재무상태에 대한 검토, 과거 성과, 안전 및 협력 정도 등 질적 기준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	- 재무제표 및 과거 성과, 안전, 협력 정도 등 질적 지표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
분석의 적용	- 특정 프로젝트	- 일반적인 건설공사 또는 특정 유형 계층(type or class)의 공사
분석의 정밀도	- 프로젝트의 규모 및 형태, 발주자의 리스크 및 전문성, 가용 자원에 따라 달라짐	- 일반적인 건설업체 특성에 초점을 맞춤

자료 : J.S. Russell, Constructor Prequalification—Choosing Best Constructor and Avoiding Constructor Failure—, New York: ASCE Press, 1996, pp. 28 ~ 29

- 이상과 같이 ① 적격심사 시 경영상태 평가의 의의, ② 우리나라 신용평가 기관들의 평가 정책 및 관행, 그리고 ③ 조달청 3~4 등급에 해당하는 중소 건설업체의 경영 현황 등을 고려할 때,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임.

제1안 : 300억원 이상 PQ대상 공사에서와 같이 통과/탈락(Pass/Fail)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

-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프로젝트 별(project-by-project)로 이루어지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의 초점은 시공성 평가에 있음.
- 물론 중소 건설업체의 경우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도 위험이 높은 것이 사실이지만, 신용등급이 수주를 좌우하는 경우 전술한 바와 같은 여러 가지 부작용이 더욱 커질 가능성이 큼.
- 따라서 현실적인 대안을 통해 적정한 수준 이상으로 경영상태를 유지하도록 유도한다면 중소 건설업체들이 무리하게 좋은 신용등급을 받으려는데 따르는 부작용을 없앨 수 있을 뿐 아니라 3~4등급 업체들의 전반적인 경영상태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전술한 <그림 2>의 비외감 기업의 신용등급 분포를 볼 때, 심사를 통과하는 신용등급의 기준은 비외감 기업의 평균 신용등급 수준인 '더블 B(BB)' 정도가 적합할 것으로 사료됨.
 - 각 기업의 신용평가 등급에 대한 신용평가기관의 정의에 따르면 더블 B(BB)는 장래의 안정성 면에는 투기적 요소가 내포되어 있기는 하나 현재 전반적인 채무상환능력에 당면 문제가 없는 상태를 의미함(<표 6>참조).
 - 현재 부도에 따르는 리스크에 더욱 민감한 일반건설업체들조차도 협력업체들의 경영상태 평가시 신용등급이 더블 B(BB) 이상이면 통과하는 것으로 하고 있음.

〈표 6〉 기업신용평가 등급의 정의

기업신용평가 등급	정의
AAA	전반적인 채무상환능력이 최고수준으로 투자위험도가 극히 낮으며, 현 단계에서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장애의 어떠한 환경변화에도 영향을 받지 않을 만큼 안정적임
AA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매우 높아 투자위험도가 매우 낮지만 AAA등급에 비해 다소 열등한 요소가 있음
A	원리금 지급 확실성이 높아 투자위험도가 낮은 수준이지만 장래 급격한 환경변화에 따라 다소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
BBB	원리금 지급확실성은 인정되지만 장래 환경변화로 지급확실성이 저하될 가능성 있음
BB	전반적인 채무상환 능력에 당면 문제는 없지만 장래의 안정성 면에서는 투기적 요소가 내포되어 있음
B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부족하여 투기적이며, 장래의 안정성에 대해서는 현 단계에서 단언할 수 없음
CCC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 매우 투기적임
CC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상위등급에 비해 불안요소가 더욱 많음
C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극히 높고 현단계에서는 장래 회복될 가능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D	원금 또는 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있음

주: 위 등급 중 AA등급부터 CCC등급까지는 등급내의 상대적인 우열에 따라 +, -기호가 첨부됨.

제2안 : 신용평가등급에 대한 배점한도(만점)를 하향 조정하는 방안

- [2-1안] 3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 전체 공사의 신용등급 배점한도를 A-로 일괄 하향조정하는 안
 - 금년 7월 1일 부로 이미 새로운 개선안이 시행되어 탈락/통과(Pass/Fail) 방식으로 개선하기 어렵다면, 업계의 현실을 고려하여 신용평가등급에 대한 만점을 현재의 트리플 A(AAA)등급에서 A-등급으로 하향조정하여야 할 것임.

- 전술한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외감 기업의 경우 원천적으로 신용평가 최고 등급인 트리플A(AAA)를 받을 수 없음. 따라서 배점 한도(만점)의 하향조정이 요구되는데, 그 기준은 먼저 전체 공사를 대상으로 일괄적으로 A-등급으로 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음.
 - <표 7>의 조달청 신용평가 등급별 건설업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신용평가를 받은 건설업체 중 트리플 A(AAA)등급을 받은 업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3~4등급 업체의 경우 유자격자명부에 등록된 전체 업체 중 신용평가를 받은 업체 비중이 각기 58.7%와 33.2%로 매우 저조할 뿐 아니라, 신용평가를 받은 업체 중 A- 이상 등급을 받은 업체도 114개사(3등급 업체 89개사 4등급 업체 25개사)에 지나지 않음.
 - 앞의 <표 6>의 기업신용평가 등급 정의에 의하면 A등급은 원리금 지급 확실성이 높아 투자위험도가 낮은 수준이며, 장래 환경변화에 대한 영향도 미미한 수준임.
-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만점 기준을 A-로 하향조정하고 만약 신용평가를 받지 않은 3~4등급 업체들이 현재 신용평가를 받은 업체들과 동일한 비율로 평가된다고 가정할 경우(이제 모든 업체들이 공공공사를 수주하기 위해서는 신용평가를 받아야 하므로)에도 3~4등급 업체 전체 중 A-등급 이상을 받는 업체는 18.5%⁵⁾에 불과함.
- 기존에 재무비율을 통한 경영상태 평가 시 만점업체의 비율이 3등급 업체 84%, 4등급 업체 83.3%였던 것을 감안할 때, 18.5%는 여전히 미미한 수치임.
- 등급별로는 3등급 업체의 경우 25.5%, 4등급 업체는 9.4%가 만점업체가 됨. 따라서 4등급 업체의 경우 재무비율 평가시보다 만점업체 비중이 크게 줄어들게 됨.

5) 신용평가를 받은 3, 4등급 업체 총 616개사(349개사+267개사) 중 A-등급 이상을 받은 업체는 114개사(89개사+25개사)이므로 이 경우 3, 4등급 업체 중 A-를 받는 업체의 비율은 18.5%가 됨.

〈표 7〉 신용평가 등급별 건설업체 현황

(단위: 개사, %)

신용평가등급 (회사채, 기업신용)	유자격자명부 등급별 업체 수 분포 및 비율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업체 수(A)	A/B	A/C	업체 수(A)	A/B	A/C	업체 수(A)	A/B	A/C	업체 수(A)	A/B	A/C
AAA	-	-	-	-	-	-	-	-	-	-	-	-
A- 이상	87	56.1	50.3	102	46.4	34.0	89	25.5	15.0	25	9.4	3.1
BBB+,	14	9.0	8.1	40	18.2	13.3	65	18.6	10.9	32	12.0	4.0
BBB-이상	41	26.5	23.7	59	26.8	19.7	115	33.0	19.3	95	35.6	11.8
BB-이상	11	7.1	6.4	14	6.4	4.7	58	16.6	9.7	90	33.7	11.2
B-이상	2	1.3	1.2	2	0.9	0.7	20	5.7	3.4	23	8.6	2.9
CCC+이하	-	-	-	3	1.4	1.0	2	0.6	0.3	2	0.7	0.2
신용평가 업체수(B)	155	100.0	-	220	100.0	-	349	100.0	-	267	100.0	-
신용평가를 받지 않은 업체	18	-	10.4	80	-	26.7	246	-	41.3	538	-	66.8
유자격자명부 등록업체 수(C)	173	-	100.0	300	-	100.0	595	-	100.0	805	-	100.0
B/C	89.6%			73.3%			58.7%			33.2%		

주 : 본 자료에 제시된 신용평가업체는 1,295개사로 조달청 유자격자명부에 등록된 등록업체 5,280개사의 24.5%임.

자료 : 조달청 자료를 본 보고서의 내용에 맞게 수정한 것임.

〈표 8〉 [2-1안]에 의한 만점 하향 조정시 만점업체 비율 변화

구분	만점업체 비율	
	재무비율에 의한 비율	만점 A- 하향조정시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비율
3등급 업체	84%	25.5%
4등급 업체	83.3%	9.4%
전체	-	18.5%

주 : 재무비율에 의한 만점업체 비율은 대한건설협회 내부 자료에 근거한 것임.

- [2-2안] 만점기준을 300억원 미만 200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 A-등급으로, 2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에는 BBB+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
 -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3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 공사 적격심사시 신용등급에 따른 만점 기준을 [2-1안]과 같이 일괄적으로 A-로 하향 조정하는 경우 3등급 업체는 약 25.5%가 만점을 받을 수 있지만, 4등급 업체는 9.4%만이 만점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추산됨.
 - 따라서 신용평가가 이루어지는 현실과 여타 등급 업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공사 규모별로 각 공사를 주로 수행하는 등급별 업체의 배점 한도(만점)가 되는 신용등급을 차별화할 필요가 있음.
 - 3등급 업체들이 주로 수행하는 300억원 미만 200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에는 A-로, 4등급 업체들이 주로 수행하는 2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에는 한 등급 낮추어 트리플 B 플러스(BBB+)로 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됨.
 - 기업신용등급의 정의에 의하면 트리플 B(BBB)는 비록 장래 환경변화로 전반적인 채무상환능력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기는 하나 현재 전반적인 채무상환능력이 인정된 등급임.
 - 따라서 트리플 B등급 중 가장 우수한 트리플 B 플러스(BBB+) 등급으로 한다면 장래 위험에 대한 우려도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을 것임.
 - 이렇게 할 경우 조달청 유자격자명부에 등록된 전체 3~4등급 업체들이 현재와 유사한 수준으로 신용등급이 평가된다고 가정하면, 3등급 업체는 [2-1]안과 동일하게 25.5%, 4군 업체는 [2-1안]보다 12%p가 증가한 21.4%가 만점을 받는 것으로 추산됨.
 - 따라서 3~4등급 업체 전체적으로는 23.7% 정도가 만점을 받는 것으로 추산됨(<표 9>참조).

〈표 9〉 [2-2]안에 의한 만점 하향 조정시 만점업체 비율 변화

구분	만점업체 비율			
	재무비율에 의한 평가	[2-1안] (A- 일괄 조정시)	[2-2안] (A-/BBB+ 구분 조정시)	증가율
3군 업체	84%	25.5%	25.5%	0.0%
4군 업체	83.3%	9.4%	21.4%	12.0%p
전체	-	18.5%	23.7%	5.2%p

- 배점기준 하향조정에 대한 [2-1]안과 [2-2]안을 비교해볼 때, [2-2]안이 신용등급 활용에 따른 수주 독점화 현상을 방지하면서 경영상태 평가의 변별력도 유지하고, 업계의 현실에도 적합한 실질적인 개선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결론

- 현재 조달청 등급별 건설업체들의 수주 실태를 발주기관별로 보면, 3~4 등급 업체들의 경우 1~2등급 업체들보다 공공공사 수주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표 10>참조). 따라서 중소 건설업체인 3~4등급 업체들에게 신용평가등급은 대단히 민감한 사안일 수밖에 없음.

〈표 10〉 조달청 등급별 및 발주기관별 수주 구성비(2006)

(단위: %)

구분	공공			민간		
		공공건축	공공토목		민간건축	민간토목
1등급	29.3	17.2	9.5	70.7	8.9	56.2
2등급	43.1	26.7	10.6	56.9	8.0	47.2
3등급	48.7	29.5	15.4	51.3	8.2	41.6
4등급	48.0	27.1	17.1	52.0	7.8	43.4
평균	33.0	19.5	10.4	67.0	8.7	53.6

자료 : 대한건설협회, 내부자료

- 물론, 금년 7월 1일부로 시행된 이 방안은 이미 3년 전에 예고된 것이었음. 그러나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는 현실적으로 많은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으며, 현재 부작용들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임.
- 따라서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배점한도를 낮추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임.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안된 개선안과 같이 만점기준을 낮춘다 하더라도 3~4등급 업체 중 만점업체는 전체적으로 20%내외에 불과하여 업체 간의 변별력도 유지될 뿐 아니라 수주독점화 현상의 방지도 가능할 것임.
- 나아가 이 기준은 기업의 노력 여하에 따라 충분히 만점을 받을 수 있는 현실적인 기준이어서 중소 건설업체의 경영개선을 유도하는 동인이 될 수 있을 것임.

김민형(연구위원·mhkim@cerik.re.kr)